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 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8

하느님의 이끄심 FMM 영적가족 나눔

10년 전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어떤 모임에 가야 하는데 부부동반 모임이라 내가 꼭 가야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약속이 있어 못 가니 나는 꼭 참석해야 한다길래 저 혼자 명륜동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날은 FMM 영적가족 첫 모임 발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코가 꺾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적응하느라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토요일도 학교에 다니던 때라 수업이 끝나면 허둥지둥 서둘러 가곤했습니다. 모임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분위기도 서먹하고 짜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임을 거듭할수록 ‘아~하~ 이런 방법도 있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홍현정 사비나 수녀님의 강의를 통해 성경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다음은 또 뭘까? 하는 흥미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황정임 베로니카 수녀님이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설명하실 때에는 성인의 고향인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또, 수도회 창립자 마리 드 라 빠시옹을 배울 때에는 그 옛날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시고 수도회를 창립할 수 있었을까 놀라웠습니다. 마침 낭트(창립자 고향)가 팔려서 넘어간다고 우리가 꼭 가봐야 한다며 프랑크 샤텔레와 낭트를 가게 된 일은 너무도 잘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친김에 인도도 가서 창립자의 업적을 돌아보고 싶어서 또 일을 저질러 인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인도 수녀님들의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창립자께서 이루신 많은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가장 잘한 일은 실수로 저를 FMM영적가족에 초대한 일입니다.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된 동기는 남편이 교리신학원 다닐 때 화령에서 공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느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화령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FMM 수녀원이 있었고, 화령 성당에서 사목도 하고 계셨습니다. 또, 공소회장님이 신심이 깊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남편과 뜻이 같아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수녀원의 건물관리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와 수녀원 집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수녀님이 당신들끼리 유지하며 살아보시겠다고 하여 불발이 되었지만 화령에 내려와 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화령 공부방은 우리 집에서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제 재능을 기꺼이 공부방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화령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작은 소원 중 하나는 시골 공소에 가서 종치며 마당을 쓰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 지금은 미사 시간 한 시간 전에 종을 치는 일을 합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냈기에 화령에 내려와서는 조용히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양 조씨 조광조 후손으로 대대로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외가 쪽도 모두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친구들이 시골로 가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렵פות이 시골이 동경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령으로 내려올 때 주위에서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며, 후배는 내가 시골을 모르는 무식에서 시골로 간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시골생활에 너무도 적응을 잘하며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낼 때는 몰랐던 하느님의 사랑을 이곳에서는 아주 많이 느끼며 삽니다. 겨울에 죽어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모든 사물이 봄이 되면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은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곤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찬미가와 성가 2번을 저절로 흥얼흥얼 노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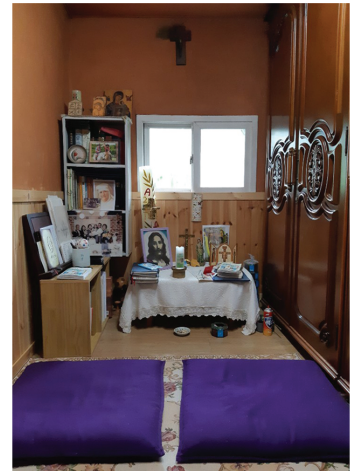
특히 농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곳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작년에 수박 두 포기, 참외 두 포기를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밭에다 심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 한번 주지 않았습니



주셨습니다. 수박을 30여 통 수확해서 나누어 먹고, 총회 때도 가지고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하느님 하시는 일에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즈음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정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매일 매일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삽니다. 조그만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만들어 남편과 함께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매일미사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가르멜 수도원 미사에도 참석하면서 (고개를 두 개를 넘어) 매일미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꼭~옥 붙어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조봉례 마리아, FMM 영적 가족 1기

환상 속의 그대

JPIC글 나눔

어느 정도 환상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실을 너무 날것 그대로만 보고 산다면 그 무게감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이 지나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면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아니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독립”에 대한 환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시작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아는 모태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선생님, 동무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사람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은 성공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적인 독립은 성숙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나친 경쟁은 “독립”을 너머 “고립”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독립”이 곧 “분리”나 “고립”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공존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의존을 실패나 모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독립은 허상일 뿐이며 의존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독립적일 뿐 아니라 더 복잡한 관계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의 개념을 자연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연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을 정복이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며 견뎌주고 있는
는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환상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 참으로 편리하고 속 시원한 말입니다. 내
주위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그 재질에 따라 썩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기까지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핵폐기물의 경우 약 10만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쉽게 “버린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내 눈앞에서 치워 어딘가로 옮겨 둔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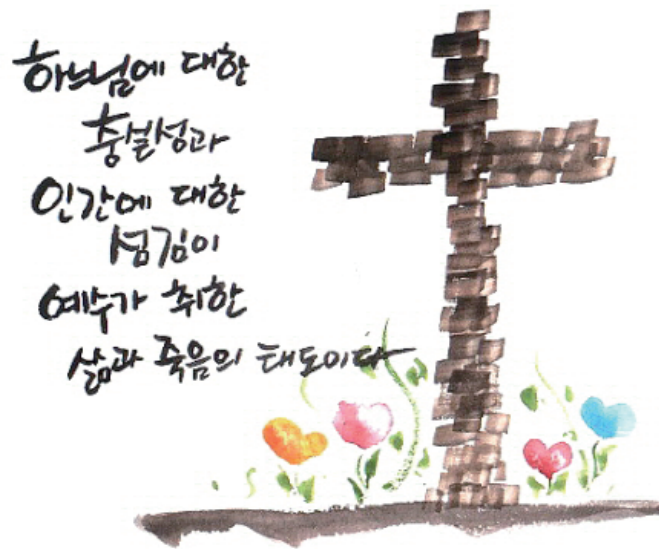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적한 시골 빈터나 야산에는 몰래 갖다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여러 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떠다니다 모여 태평양 한
가운데에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쓰레기 산”이나 “쓰레기 섬”을 검색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사들이 나옵니다. 인류는 환상의 세계(wonder land)을 꿈꾸었지만
실제로는 쓰레기 세상(waste land)을 이루었다는,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상품을 만들어낼 때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쓰레기는 결국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
니다.



‘태평양 대 쓰레기장’이라 불리는 쓰레기 섬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독립”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서로 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린다”는 것도 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옮겨두는 것이며, 결국 나에게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고 우리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대, 아직도 환상 속에 있는지요?

이영주 스텔라, fmm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